|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⑤ 국제색 풍부한 우리 반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④한국 TV에서 한국어로 야스쿠니를 말하다
|칼럼| '서울 ⑥ '배계(님' 나를 비판

May 16, 2013

좋아요 56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선언도 했고 의회에서 훌륭히 연설도 했으니 경사로구나…… 했더니만, 대통령 대변인이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경악할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명예로운 외교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그런 화제로 떠들썩한 가운데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2달 반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니는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은 15일에 봄학기를 마치고 보름간의 휴가에 들어갔다. 1년 4학기인 이 학교에는 1급부터 7급까지 클래스가 있는데, 6급을 끝내면 졸업증서를 받을 수 있어 7급은 격이 다르다. 내 경우는 30년 전 유학의 성과가 어찌어찌 살아 있었는지 느닷없이 5급에 들어가게 돼 갖은 고생 중이긴 하지만, 여름학기를 마치고 받을 졸업증서를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렇긴 해도 6급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성적으로 갈리는데, 실은 요 며칠 기말시험을 치렀다. 읽기와 쓰기, 듣기, 그리고 회화. 평소 예습복습을 소홀히 하기 쉬운 나는 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밤샘으로 '열공'을 하게 됐겠다. 그런데도 중요한 시험 전날 밤 지인의 유혹에 흔들려 늦게까지 한 잔 마시고는 노래까지 하고 말았으니, 다음날은 멍해서 악전고투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제저녁 '사교생활'을 거절 못 하여……." 끝내 답안지에 변명을 적어내고 말았다. 그 덕을 봤는지 어쨌는지 간신히 합격하고 한숨을 돌린다.

작금 한류 붐의 영향으로 학교에는 젊은 일본 여성들이 넘치지만, 우리 반 11명은 한국의 초청프로그램으로 온 유학생이 많아 국제색이 풍부하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이집트, 미국, 루마니아, 러시아, 그리고 호주와 일본이 두 사람씩. 옆 반에는 중국, 베트남, 이란, 이탈리아… 대충 이렇다. 예전에 내가 유학하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채로움에 한국이 얼마나 변모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같은 반 친구인 미국 청년과 루마니아 여성은 일본에 머무른 적이 있어 일본어도 할 줄 안다. 미국 청년이 원래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중국문학이라는 말에 놀라자, 청년 왈 "한국에서도 한자를 쓰면 이해가 빠를 텐데……." 실로 와닿는 탄식이라 마음속 깊이 공감한다.

쉬는 시간의 화제도 풍부하다. 이집트 여대생은 무바라크 체제가 붕괴한 2011년 혁명 체험을 열띤 소리로 이야기했고, 루마니아 여성은 차우셰스쿠 체제가 무너진 당시의 추억을 잔잔히 말한다. 러시아 여성은 소련시대를 모르는 신세대다. 캄보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클

More AAA
Facebook
Twitter

디아 여성도 폴포트 정권 시절의 공포를 부모님께 듣고 자란 세대다.

두 명의 호주 학생은 현지 대사관에 근무하는 커플이다. 결혼은 안 했지만 공인된 관계로, 공부하라는 지령을 사이좋게 받은 것은 나라의 유연함일까. 가장 젊고 장난기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은 바로 며칠 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제이벤트에 출연해 자기 나라의 민속 의상을 입고 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 '최연장' 학생, 인생경험으로 승부

선생님은 물론 한국사람이다. 4과목 중 2과목을 가르쳐 주시는 담임선생님은 젊은 여성으로 아주 멋쟁이시다. 그 밖에도 계속 웃겨 주시는 개그맨 타입과 수줍음 많은 남자선생님께서 두 분이 1과목씩 맡아 주시는데, 다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 교과서에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습관, 사회문제도 담겨 있고 영상교재에는 코미디프로나 토크쇼도 들어 있어 질리지 않는다.

자, 나는 최연장 학생이다. 젊은 사람처럼 단어를 술술 외울 수는 없지만, 수업에서는 인생경험으로 승부다. 하여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배우는 즐거운 나날이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 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2013년 1월 아사히신문 주필 자리를 떠나, 3월부터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와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권오기 씨와의 대담)등이 있다.

서울에서 쓰는 편지 와카미야 요시부미 서강대학교 유학생

1

Share

좋아요 56

댓글 입력...

김지방 · 서울특별시

Submit

건투를 빕니다!

답글달기 · 1 · 좋아요 · 5월 28일 오후 3:03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관련기사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⑩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류는 '다른 세계'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가 "응?" 했다. 일본사람 지인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나

좋아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⑨즐겁다까, 신촌에서의 하숙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나는 자취가 서툴고 외식만으로 나날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으 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에

좋아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⑧ 대학생들의 지적 교류, 한관계에 희망 보여

July 05, 2013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란 선을 흩어 태극기를 연상하게 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다.

좋아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⑦강연, 원, 공연. 세 가지

‘고엔’으로 젊음 되찾다

June 20, 2013

강연, 공원, 공연. 한국어 ᄇ
선지 일본어 발음은 다 똑깉
주는 그런 ‘고엔’의 연속ᄋ
된’ 한 주였다.

좋아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⑥ ‘배계(拜啓) 김대중 선비님’ 나를 비판하는 기사에 답장

June 03, 2013

한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ᄋ
가 있다. 조선일보 전 주필ᄋ
김대중 씨다. 김 고문은 언ᄅ
로 지금도 조선일보에서 칼ᄅ
중 한 편에서 내가 비판의 ᄃ

좋아